



우리의
家章

靑松沈氏宗報

發行人：會長 沈宜洛
編輯人：文化理事 沈載緒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7-9339
FAX：(02)2269-7755
印刷：청송그래픽스
(02)2261-0772

홈페이지 | www.csshim.or.kr

임시이사회 및 총회 결과보고 드립니다.



▲ 의락 회장님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진행하는 갑보 부회장

청송심씨대총회 제61회 임시이사회와 제44회 임시총회는 청송심씨대총회 정관 제17조 1항과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락 회장의 소집 요구에 의해 2013년 6월 20일에 소집되었고, 심의락 회장의 위임을 받은 심갑보 부회장의 주재로 동일 11시와 11시 30분에 개최되어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다.

■ 제61회 임시이사회

△ 일시 : 2013년 6월 20일 11시
△ 장소 : 성균관 유림회관 3층 콘서트 홀
△ 참석이사 94명, 위임장 81명(계 175명)

▶ 의안 및 결의 사항

1. 종재관리 강화를 위한 정관개정
 - 업무분장 조정 : 총무부와 재무부의 업무 조정
 - 종중재산의 관리(신설)
2. 추경예산안 승인
 - 당초 예산보다 수입·지출이 2천만 원 증가
3. 특별회계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 2천만 원을 목적사업회계로 전입

■ 제44회 임시총회

△ 일시 : 2013년 6월 20일 11시 30분
△ 장소 : 성균관 유림회관 지하1층
△ 참석인원 : 299명

▶ 의안 및 결의사항

1. 2013년 3월 21일 정기이사회에서 위임사항
 - 정관개정
 - 부회장 계파별 증원 : 영동정공종회 1명, 안효공

종회 1명, 지성주사공에서 1명씩 증원(심의철, 심상균, 심상록 부회장 선임)

- 명칭 변경 : '山所(口語體)' 를 '墓所(文語體)' 로 변경
- 2壇所 : 二世 奉翊公, 四世 岳隱公을 정관 3조 1항에 삽입
- 운영위원회에 관한 제9조 5항과 10조 5항 삭제

■ 제61회 임시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의안

1. 제7장 23조 업무조정 및 종재관리 강화를 위한 제9장 제29조 1)항 2)항 3)항 4)항 신설 및 부칙 조정
2. 추경예산안 승인
 - 잡이의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수입이 2천만 원 증가
3.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 증가된 수입 2천만 원을 목적사업회계로 전입
4. 수권결의안
 - 종재관리 등 돌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총회의 의결권을 회장단회의에 위임하는 것임

- 總務理事 -

지난 6월20일 제44회 임시총회에서 5세 파종회 중 종인 1萬 명에 부회장 1명을 기본으로 하고 5萬 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하는 조건에 따라 개정된 대총회 정관 제3장7조5항에 명시된 부회장 7인이 10인으로 증원되었으며, 그 증원된 규약에 따라 영동정공종회, 지성주사공종회, 안효공종회에서 각 1명씩 3명의 부회장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악은공종회 심의철 회장, 지성주사

공종회 심상록회장, 안효공 후손인 부산광역시 지역총회장인 심상균회장이 대총회 부회장으로 만장일치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선임되었습니다.

별사봉공(滅私奉公)에 투철하신 세분의 부회장님께서 대총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대총회 부회장직을 기꺼이 수락해주셨습니다.



심 의 철
대총회 이사
악은공종회 회장
원일사 대표이사



심 상 록
대총회 이사
지성주사공종회 회장
前 장성군 산림조합장



심 상 균
대총회 이사
부산총회 회장
(주)에스피시스템스 대표이사

지방순회(수도권) 뿌리교육

문중의 뿌리와 역사를 배우고 종인들 간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지방순회 뿌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수도권에서 실시하오니 일가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자 : 2013. 8. 10(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구청 2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청송심씨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 남녀
- ▶연 락 처 : 02-2267-9339(문화이사)
- ▶찾아오시는 길
지 하 철 : 3호선 정발산역 4번출구
버 스 : 1000, 7106, 1100, 1500, 2000, 706, 707, 8880번
일산동구청 정류장 하차

▶교육일정표

교육시간	교육내용	진행 및 강사	비 고
10:00~10:50	대총회 회장 인사	대총회 문화이사	
	공숙공종중 회장 인사		
	청송심씨 선대사적		
11:00~11:50	나 자신과의 싸움	동영상	
12:00~12:50	점 심	심갑보(대총회 부회장)	
13:00~14:00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심민섭 화백	종보 「심영감」 작가
14:00~15:00	대총회 소개 및 홈페이지 소개	집행부	문화이사 / 총무이사
15:00~16:00	용의눈물	동영상	
16:00~16:30	간식 및 선물		

※교재와 증식은 무료제공

- 주관 : 청송심씨대총회 회장 심 의 락
- 후원 : 청송심씨 공숙공종중 회장 심 응 섭

대종회 소유 안성 위토 보상금 관련 의견



심 상 렬

대종회 감사
종보편집위원
광운대 교수
한국중재학회 회장

청송심씨대종회는 25만명의 우리 심문(沈門)을 대표하는 중앙종회(中央宗會)입니다.

1894년 갑오경장 이전에는 고위직을 역임하며, 문종을 빛냈던 선조님들에 의해 종원들 간의 돈목(敦睦) 및 위선사(爲先事)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1909년 정식으로 중앙종회가 발족된 이래 1923년 청송심씨종약소(靑松沈氏宗約所), 1955년 돈목회(敦睦會), 1957년 찬경회(讚慶會)로 개칭되었으며, 1971년 발전적인 개편에 따라 대종회(大宗會)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긴 하였지만, 모두가 우리 심문의 중앙종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훌륭한 선조님들께서는 선대조로부터 물려 받은 종중재산을 대대손손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1920년 발간된 경신보(庚申譜)에 여러 명의 종유사(宗有司)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된 위토(位土)를 명기하여 종중재산을 확고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대종회 정관 제3조 2항은 “(2002. 09. 10. 발간된) 대동세보(庚辰譜)의 5처 묘소 위토 목록에 등재된 재산은 등기명의가 상이해도 대종회에서 소유 관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14조 2항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수용으로 인한 재산처분권은 회장단회의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종회에서는 5처(청송, 함열, 안성, 연천, 청주)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오면서 관리 유지해 왔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도 대종회에서 중앙 관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지방에서 소위 종사 일을 본다는 일부 종인들의 탐욕으로 인해 미등록된 다수의 대종회 위토가 손실된 것은 후손으로서 선조님들께 매우 죄송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청송, 함열, 청주, 연천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재산이 토지, 건물 등 관련 공부(公簿) 및 등기부에 중앙종회인 ‘청송심씨대종회’로 명의 이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 지역의 일부 위토만은 아직도 중앙종회로 명의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대종회 초대 성택(聖澤) 회장님, 2대 명구(明求) 회장님께서 안성 지역의 해당 위토에 대해서도 명의 신탁자의 상속자들로부터 “중앙종회로 명의 이전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놓는 등 무던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종회인 안성종회를 대표했던 당시 대종회 경주(庚周) 이사(현 대종회 고문) 등의 반대와 대종회 집행부의 직무 소홀로 인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 1992.11.30, 법률 제4502호; 2005.05.26, 법률 제7500호)’에 따라 몇 백만원의 등록세, 취득세로 대종회로 명의 이전이 가능했던 수차례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대종회 40년 약사」 p.266 및 「2013년 제44회 임시총회」 p.9 참고자료 참조). 현재는지가(地價) 상승으로 인해 명의 이전 비용이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종보(宗報)에 게재된 바와 같이 3세조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 휘 : 龍) 및 배위 김씨 할머니 묘소가 있는 안성 소재 3필지의 일부분이 도로 확 · 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관례(慣例)를 깨고 안성종회(회장 광택)에서는 그 보상금 316,936,000원을 2013. 05. 03. ‘청송심씨청화부원군과종중’ 명의로 수령하여 대종회로 입금시키지 않고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동안 안성 지역의 위토와 관련한 수차례의 소송 및 보상금 수령은 대종회에서 직접 회장 명의로 수행하거나 안성지역 유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대종회 총무이사가 대종회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청송심씨청화부원군과종중회’ 직인을 날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수령된 보상금은 대종회에 전액 입금되어 왔던 것입니다(「대종회 40년 약사」 pp.271-280 및 「2013년 제44회 임시총회」 p.9 참고자료 참조).

이에 대종회에서는 대승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13. 05. 13. 회장단회의 의결에 따라 2013. 05. 25. 안성종회를 대표하는 종인들(대종회 경주 고문 포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5년 3월 대지 250평, 건평 112평의 3세조 청화부원군 재실(3층)이 준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위인) 3세조 김씨 할머니의 재실 건축을 보장해야 대종회에 입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종인들이 공감하듯이 지난 2013. 06. 20. 열린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소란스러웠던 것은 안성종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종인들의 비상식적인 회의 진행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회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변경 등과 정관 제3조 2항의 5처 묘소 위토목록에 등재된 재산 등에 대한 재산권 보전 등을 위한 제반 민 · 형사 법적 조치를 회장단회의에 위임한다”고 수권결의(授權決議)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종회 정관 제10조 9항은 “감사는 회무(會務) 및 재정(財政)의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며, 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13. 05. 25. 열린 대종회와 안성종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때 춘식(春植) 감사께서 「대종회 소유 부동산 등기명의와 관련한 재산관리 문제 고찰」이라는 서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5월 종보 p.6 참조).

대종회 3인 감사(監事)의 일원으로서, 저는 지난 6월 개최된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의 일부 종인들의 언행과 관련하여 대종회 홈페이지의 ‘열린마당 게시판’에서 지속되고 있는 매우 거친 표현의 논쟁은 종인들 간의 돈목 및 대종회 발전을 위해 자제(自制)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제의 발단인 안성 지역 위토와 관련하여 대종회 보관 서류 등을 근거로 감사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종인으로 명의 신탁되어 있던 안성 지역의 위토는 51필지 중 37필지가 현재 ‘청송심씨대종회’로 명의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3필지를 포함한 14필지는 1962. 03. 29. ‘청송심씨청화부원군과종중’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대종회로 명의 이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이 14필지는 일제 강점기 때인 1916년 토지대장에 서울과 지방의 종유사 7인 공동명의(相翬, 相珣, 宜壽, 能壽, 周慶, 孝根, 忠根)로 명의 신탁되었으며,

1920년 경신보(庚申譜)에 종중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명의자 중 2인(孝根, 忠根)은 대종회 경주(庚周) 고문의 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인 공동명의로 명의 신탁되었던 14필지가 1962. 03. 29. ‘청송심씨종중’으로 명의 이전(舊내부부 부여 등록번호 261112~3146049)되었다가, 동일 날자에 동일 등록번호로 ‘청송심씨청화부원군과종중’으로 다시 명의 이전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명의 신탁된 중앙종회의 재산이 해방 이후 ‘청송심씨종중’이나 당시 중앙종회인 ‘돈목회(敦睦會)’로 명의 이전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일 날짜, 동일 등록번호로 그 이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청화부원군과종중’으로 다시 명의 이전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해당 위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안성종회의 일부 종인들에 의한 의도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심문의 93% 정도가 3세조 청화부원군 후손입니다. 대종회에서는 시조, 2세조, 3세조, 4세조 및 그 배위의 묘소 수호와 제향 봉행, 재산 관리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안성종회의 일부 종인들이 행정처리에 허점이 많았던 당시의 어지러운 지역 여건을 이용하여 임의로 ‘청화부원군과종중’을 만들어 대종회 재산을 명의 이전하고, 대종회의 허락 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도 모자라 그 납부를 거부하고 있던 말입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성종회 일부 종인들의 반대와 대종회 집행부의 직무 소홀로 인해 부동산 등기 특별법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안성 위토를 대종회로 명의 이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 이번과 같은 안성종회의 위토 보상금 납부 거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그 당시 대종회 명의 이전을 무산시켰던 종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6월에 열린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과행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일부 종인들은 여전히 “현재 안성지역 유사가 잘 관리(?)하고 있는 위토를 왜 굳이 돈을 들여 대종회로 명의 이전을 하느냐?”고 예전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갑보(甲輔) 부회장님의 저서 제목처럼 지금이라도 안성 지역의 위토를 대종회로 명의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 앞으로도 이번 안성 지역의 위토 보상금과 유사한 불미스런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종회 감사로서, 저는 안성 지역의 위토를 대종회로 명의 이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종회 정관 제14조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안성 지역의 위토 보상금은 즉시 대종회로 입금되어야 하고, 대종회 운영의 중추적 기관인 회장단회의에서 그 처분을 결정하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종회 정관, 기존의 관례, 일반적인 상식 등을 고려할 때 지역종회인 안성종회가 대종회를 대상으로 안성 지역의 위토 보상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안성종회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위토 보상금을 무조건 대종회로 입금시키고, 그 처분을 회장단회의에 맡겨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종회의 관련 규정과 임시총회에서의 수권결의(授權決議)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모 범 종 회 소 개

대구 청·장년회



심 흥 식
대구 청·장년회 회장

◆ 연혁 및 행사

1988년 대구종회 회장 이하 당시 심흥섭 총무의 지원 아래 청장년들의 친목도모와 단결을 목적으로 청송심씨 대구청장년회가 발족되었다.

대구청장년회에서는 1989년 부터 每年 (음정월에 대구종회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情을 나누며 세배를 드리는 신년 교례회 행사를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모범종회이다.

또한 매년 대구종회 정기총회 행사 시 전 회원 부부동반



▲ 흥섭 대구종회장 신년교례회 시 인사장면

참여하여 일가 종친들의 행사를 빛내기 위해 솔선수범 하여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시조 할아버지 묘소를 비롯하여 선조님의 묘소를 순방하여 참배를 하고 조상님들의 업적을 보고 배우며 견문을 다지고 있으며, 회원 종친간의 대·소사에도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일가 간에 돈목을 다지고 있다.

2002년에는 청장년회 기금을 조성하여 1천만 원을 대구종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 역대회장

재욱, 노수, 신광, 성만, 정수, 보배, 상한, 상배, 삼복, 현보, 학보, 흥식

◆ 12대 현 집행부

• 회장 : 심흥식 • 총무 : 심광열



▲ 대전 뿌리공원에서 기념사진

沈명감 심민섭



종회별(과거 11년간) 찬조 현황
(2002년~2013년 7월 20일 현재)

중회별 찬조 내역을 감사의 뜻으로 확인해 주시고 성원을 계속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종회는 (●)으로 표시하였으며, 하기 내용 중 이상이 있는

중회는 대중회 재무담당에게 필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0일
(대중회 재무/문화이사)

▶ 파종회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장학	중보	
봉익공파	봉익공철원종회(회장:상하)	2 晟	●	●	
악은공파	악은공종회(회장:성철)	4 元符	●	●	
	현령공종회(회장:성보)	5 天柱	●	●	
	현령공경남종회(회장:재희)	5 天柱	●	●	
도총제공파	도총제공종회(회장:민섭)	5 仁鳳	●	●	
판사공파	판사공종회(회장:정섭)	5 義龜			
지성주사공파	지성주사공종회(회장:상록)	5 繼年		●	
인수부윤공파	인수부윤공종회(회장:정구)	5 澄			
인수부윤공파	곡성종회	9 淳			
	정랑공종회	9 澧			
	내금위공종회	11 浬	●	●	
	절도사공원강종회	12 元剛	●	●	
	군수공종회	13 俠			
	우발종회	13 儻			
	참판공종회	14 之治			
	적공파종회	15 楫			
	청평도위공종회	15 益顯			
	좌승지공종회	15 欄			
	통천공종회	16 廷紹			
	동지돈령공종회	16 廷紀			
	함흥공종회	16 廷最	●		
	현재공종회	17 師正			
	성천공파오남종회	18 謙鎭			
익모공종회	20 益模		●		
노학공종회	21 魯學				
청만공파성신공종회	22 遠朋				
안효공파	안효공종회(회장:상덕)	5 溫		●	
안효공파	영중추공파	영중추공	6 漣		
		수사공종회	10 巖		●
		임천공종회	10 鎭		
		양지공파 임피종회	10 業	●	●
		진사공파종회	11 友俊		
		청계부원군종회	11 友勝		
		군자감주부공파종회	12 沃		
		양지공좌승지공종회	12 淑		
		수찬공파고척종회	12 譚		●
		용난재공종회	13 得進		
		공숙공종중	6 滄	●	●
		이경공종회	7 瀚		●
판관공종회	7 浚	●	●		
사인공종회	8 順門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장학	중보	
안효공파	공 속 파	수찬공종회	9 達源		●
		효창공종회	9 達源		●
		좌의정공종회	9 通源		●
		정수종회	10 疑		●
		첨정공종회	10 鎡	●	
		곡산공종회	10 鏞	●	●
		청양군종회	11 義謙		
		풍덕공파종회	11 荀		●
		생원공파	11 蓉		●
		광주금당산종회	11 友賢		
		선무공산종회	11 友信		●
		사어공파종회	11 友寬		●
		도사공파종회	11 友仁		●
		성천부사공종회	11 禮謙		●
		정랑공파종회	11 智謙		●
		부평공종회	11 信謙		
		충익공종회	11 忠謙	●	●
		신천공종회	11 孝謙	●	●
		신천공파춘천종회	11 "	●	●
		수운판관공종회	11 悌謙		●
		찰방공파종회	12 仁祺		●
		정언공파진원촌종회	12 仁禧	●	●
		수운판관공파마산소종중회	12 協	●	●
		김포군수공파종회	12 慣		●
		참판공종회	13 廷世		
		선교랑파	13 廷熙		
		정강공파마산종회	13 廷江		●
		광주부윤공산산종회	14 楡		●
		장사랑공파종회	14 松直		●
		신천공김포현공종회	14 攄		●
무숙공파종회	14 松茂		●		
증참판공종회	15 漢瀾				
광주금당산송암종회	15 瑛容		●		
광주금당산백암종회	15 璿容				
광주금당산두암종회	15 瑛容		●		
신천공지경종회	15 壽漸				
양순공파종회	16 養淳				
청현공종회	17 宅賢				
제철공종중	17 濟詰				
만중공종회	18 萬重		●		
통훈대부공종회	18 鎰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장학	중보
안효공파	생원공파법궁종중	19 燁之	●	●
	정랑공파마산종회	19 宣之		
	정어공(어비리)종회	6 決		●
영파	정어공파부사공종회	11 源海	●	●

▶ 지역종회 및 종친회

지역	종회명	찬조여부 장학 중보	지역	종회명	찬조여부 장학 중보	
						서울
	서서울종회	●	충주청송회		●	
	동서울종회		충남	공주종회		
	영등포종친회	●		당진종회		
	청송골프회	●		부여종회		
	청심회	●	전북	전북종회	●	●
부산	부산종회	●		전북청송회		●
	부산청송회	●	익산종회	●	●	
	부산청년회	●	정·고·부 회수회		●	
대구	대구종회	●	전남	임·순·남종회		
	대구 청·장년회	●		순천종회		
인천	인천종회	●	경북	함평종회		●
	청인회	●		여수종친회		●
광주	광주청광회	●	대전	구미종회	●	●
	대전·충남지구종회	●		성주종회		●
울산	울산청년회		경남	안동종친회	●	●
	울산청송회	●		안동오명종친회		●
강원	삼척종회	●	경북	김천지역종회		
	원주·횡성종회	●		청송청년회	●	●
	금화종회			경남	고성군종친회	
춘천종회	●	진주종회			●	
경기	김포종회	●	해외	통영종회		●
	부천종회			함안종회		●
	성남종회			함천종회		●
	안성종회	●		미주종회		
	장호원종회			일본종회		●
	용인종회			캐나다종회		●
충북	제천·단양종회		인터넷	인터넷종친회		
	증평종회					

종/인/탐/방

선조(先祖) 유훈(遺訓) 받들며

600여 년 우리 본향 종가(宗家) 지켜온 영섭(榮燮) 악은공 종손

심영섭(榮燮)
악은공 종손

우리 심문(沈門)의 본향(本鄉)이기도 한 이곳 청송(靑松)은 향파(鄕派) 후손들의 세거지(世居地)로 600여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시조(始祖) 선산(先山)을 수호(守護)하며 본향(本鄉)을 지켜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 가문(家門)의 종통(宗統)을 이어오고 있는 분이 있다. 그가 바로 악은공(岳隱公)의 20세손(世孫)인 영섭(榮燮) 종손(宗孫)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심문(沈門)을 대표하는 종손(宗孫)으로 또한 지역의 명망(名望) 높은 유지(有志)로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다.

종손은 20대 청년기인 지난 1960년대 초에 본향 마을의 지도자로 추대되어 사회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그는 이장(里長) 모곡(耗穀)을 받아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시키고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확장사업을 전 주민이 공동 부역으로 참여시키는 등 덕천마을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식량증산 시책사업에도 전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전국 우수마을에 선정되어 당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우수 지도자상과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 마을공동기금을 마련하여 지난 1971년 청송 지역에서는 최초로 초동불 시대를 마감하고 밝은 전등불을 밝히는 마을로 탈바꿈 시키는 눈부신 역할을 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들로 종손은 마을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1972년도 유신 정권하의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출마에서 부터 1996년 민선2기 청송군의회 수장(首長)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하기까지 약 20여 년간 지역에서 다양한 정·관계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 기간 중 그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양심을 지키며 지역의 빛이 되었고 소금 역할을 자처해 온 청빈(淸貧)한 삶을 살아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역 원로(元老) 중의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종손은 정치에 입문(入門)하면서부터 우리 심문(沈門)의 종손(宗孫)이라는 도덕적 의무와 잠재의식 때문에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고 언제나 힘들고 외로운 시기였다.

대문중(大門中)의 종손(宗孫)이다 보니 매년 크고 작은 의례나 행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매년 연례적으로 치르는 연중 행사만도 봄(한식)과

가을(음력 9월 9일) 두차례의 시조 향사(始祖 享祀)와 악은공 춘향제(음력 3월 25일), 가을 시제, 이밖에도 문중 정기회 및 임시회, 기타 각종 문중행사 및 유림 행사 등을 합하면 1주일에 보통 한두차례 정도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역내 종원(宗員)들의 대소사(大小事) 시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문중(門中)의 큰 어른으로서 정중한 예(禮)를 갖추는 일은 그의 생활 철칙이기도 하다.

종손에게는 슬하에 위로 출가한 딸 2명과 막내 외아들 등 3남매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제 깊은 걱정이 한가지 생겼다. 지금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아들이 자신이 해오고 있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종손은 명쾌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지금의 세태 속에 21세(世) 종손인 아들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그 삶의 방식을 이어 간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그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아버지의 입장을 아들도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과 의무감 그리고 부모님의 정신을 십분의 일이라도 이해하려고 대구에서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차례씩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 문중 대소사(大小事)나 의례(儀禮)시에 꼭 참석하고 어른들께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종부(宗婦)도 요즈음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종손(宗孫)이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지역의 종친(宗親)들과 외부 손님들이 집에 몰려 든다. 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빈입으로 그냥 보낼 수가 있는가?

식사 대접은 고사(固辭)하고라도 술과 음료수 등 간단한 음식을 대접하는 일도 보통일이 아니다. 그나마 종부(宗婦)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현재 지역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둘째 딸이 퇴근 후, 공휴일 등 틈틈이 시간을 내어 몸이 불편한 종부(宗婦)를 위해 집안 청소 등 잔일을 챙기고 일손을 거들어 주고 있다.

이처럼 종부(宗婦)는 집안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좀처럼 내색할 수 없다. 특히 집에 오는 접빈객(接賓客)에게는 사소한 실수라도 엄한 종손(宗孫)에게는 용납될 수가 없다.

종손은 자신의 인생관에 대한 질문에 “내가 죽은 뒤에 무덤을 지나는 지인(知人)들이 비록 가난하였지만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다가 간 사람”이라는 정도로 세인(世人)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다면 족(足)하고, 그러한 철학을 오늘날까지 자신의 좌우명(座右銘)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또한 종손(宗孫)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자신의 복(福)이고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록 시대가 변했지만 우리 조상들도 이러한 일을 모두 하였고 본인도 한 문중의 집안 어른으로서 그 계통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여기고 있다.

오늘날 한 집안의 종가(宗家)를 지키면서 선조들의 업적을 이어 나가는 일은 우리 사회의 어느 씨족, 어느 종가(宗家), 어느 종손(宗孫) 누구다 느끼는 무거운 책무이다. 시대가 변하여 가치관이 변하고 집안의 유물이나 예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일은 요즈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종손(宗孫)이었지만 이제 세월의 무게 앞에 그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수년전부터 이런저런 원인으로 시력(視力)과 청력(聽力)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노환(老患)으로 인한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못해 이제 외부의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종손은 앞으로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문화 계승은 분명 현실에 맞게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평소애 늘 강조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따라 “옛 것은 지키고 새로운 것은 받아 들인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역사는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共存)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숙제”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유년(幼年)시절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우고 익히고 몸에 배어온 600여 년 종통(宗統) 예법(禮法)에 따라 조상들께 행여나 누가 될까 / 때로는 가문(家門)에 폐가 될까 / 숙명처럼 살아온 고난의 길...

남들은 종손(宗孫)의 권위가 있어 자랑스럽게 여겨질지 몰라도 어딜가나 몸가짐 언행(言行) 하나 조심하고 외로워도 말 못하고 괴로워도 참아내며 걸어온 한 길이다.

오늘날 세태의 변화로 우리 전통 종가(宗家)와 종손(宗孫)의 위상이 과거와는 많이 변화되었지만 60~70년대 전후만 하더라도 한 문중(門中)에서 종손(宗孫)의 위치는 대단하였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예전에 우리 전통사회에서 종손(宗孫)의 지위(地位)는 소 문중(小門中)은 작게는 종원(宗員)이 수백명에서부터 큰 문중(大門中)의 경우는 수천명, 수만명씩의 지손(支孫)들을 거느리면서 위토(位土)와 임야(林野) 등 종중(宗中) 재산권 행사와 크고 작은 종중(宗中) 일들을 실질적으로 맡아 막후에서 조정하면서 봉제사(奉祭祀)를 책임지고 종원(宗員)들의 친목과 질서유지를 행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도 각별한 예우를 받았다.

옛날 우리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종손(宗孫)은 경상 감사와도 맞바꾸지 않았다”는 얘기도 종종 오고 갔던 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유교의 이념을 존중하는 우리 농촌부락에서의 종가(宗家)와 종손(宗孫)의 위상은 비록 예전 같지는 못하지만 종가(宗家)는 가문(家門)의 뿌리와 상징으로써 또한 종손(宗孫)은 가문(家門)의 구심체로 문중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支柱)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권리는 없고 의무만 남아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종손(宗孫)!

그렇지만 평소 항상 높은 자긍심(自矜心)과 의연(毅然)함, 그리고 모범적인 행동과 책임 있는 말 한마디는 지역 종인(宗人)들은 물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부터 물질 만능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오늘의 세태속에 진정한 우리 인간의 길을 보여주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어느덧 팔순(八旬)을 바라보는 연로(年老)한 모습에서 종손(宗孫)의 지나온 삶은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정신과 역사적 숨결이 깃든 하나 하나의 소중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시대적 소임과 역할을 다해온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때로는 수많은 아쉬움이 점철(點綴)되었던 인고(忍苦)의 세월이 아니었던가 싶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이곳 본향(本鄉)에서 우리 심문(沈門)의 정서적 지주(支柱)로 종인(宗人)들과 함께 해온 종손(宗孫) 어른!

오늘도 외롭고 힘든 길을 마다 않고 600여 년 선조들의 빛나는 충(忠), 효(孝), 인(仁)의 덕망을 베푸는 우리 본향(本鄉) 지킴이로 이 시대의 마지막 종손(宗孫)의 삶을 묵묵히 견고하고 있다.

(글쓴이 : 편집위원/대중회 이사 심남규)



▲ 악은공 제향을 마치고 경의재에서 기념촬영

문 화 교 니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국대사(1993-1997) 였던
<제임스 레이니>는 임기를 마치고 귀
국하여 에모리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
던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만났다.

<레이니>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뱃이 되어
주었다.

그 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 잔디를 깎아주거나 커피를 함
께 마시면서 2년여 동안 교제를 나누
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서 노인을
만나지 못하자 그는 노인의 집을 방문

하였고,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곧바로 장례식 장을 찾아 조문하면
서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을 지
낸 분임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라며
봉투를 건넸다.

유서의 내용을 보고 그는 너무나 놀
랐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뱃>이 되어 준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 주고, 커피
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
에게……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
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3가지 점에서 놀랐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
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자
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셋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
게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만으
로 그렇게 큰돈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레이니교수는 받은 유산을 에모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제임스 레이니>가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굴러 들
어왔지만, 그는 그 부(富)에 도취되어
정신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부(富)를 학생과 학교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을 때, 그에
게는 <에모리대학의 총장>이라는 명
예가 주어졌다.

-자료제공 :
상은 부회장 / 편집위원회 회장

★ 코카콜라 회장의 유서 ★

내 생의 마지막 날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와 고민을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무얼 해도 의욕이 나지 않고 그저 어서 빨리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산다면 사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죠.
그것은 당신이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울 때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잠에서 깬 때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때도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을 때도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풍경을 볼 때도 다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도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저를 찾아오시죠."

남자는 별 시답지 않은 말도 다 들겠다는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이제 막 노을이 물들기 시작한 도시는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기차 창에 기대어 무심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던
남자는 장난삼아 이것이 내가 본 마지막 노을인가
라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저 무심히 스쳐 지나가던 차창 풍경이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풍경 하나하나에 눈길이 가고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차길을 따라 서 있는 가로등의 불빛도 처음으로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 넘은 세월을 매일 보던
노란 수은등 불빛이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면서 남자는 이렇게 집에 돌아가
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울컥 하는 마음과 함께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졌습니다.

고생한 아내에게 아직 고맙다는 말도 못했는데,
아이들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가족들 붙여 키스도 한번 못했는데,
오늘이 내 인생에 마지막 날이라면 못다 한 이야기,
못다 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갖가지 후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황금색 불빛
아래 25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쳐다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오래도록 껴안았습니다.
'사랑 한다'는 말과 함께....
그는 바로 이 순간 내일부터 하느님이 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는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제공 : 상은 부회장 / 편집위원회 회장

삶의 유머

승합버스

기사가 시골길을 동네 할머니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소곤소곤 이야기 하던 할머니가 어깨를 툭툭 치더라요.

운전기사가 “네?” 하고 대답하니까
아몬드를 한주먹 기사에게 주는거예요.

운전기사는 고맙다고 말을 하고 아몬드를 먹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이야기를 하던 할머니가 또 어깨를 치면서
한주먹 아몬드를 주는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계속 가는데 한참 후
또 아몬드를 주길래 기사가 물었어요.

기 사 : 감사합니다만 왜 자꾸 아몬드를 주세요?

할머니 : 우린 이가 약해서 먹을 수가 없어...

기 사 : 그런데 왜 사셨어요?

할머니 : 그래서 초코렛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자넬 주는거야~

- 대중회 관리부장 -

소도둑의 변명

소를 훔친 범인이 체포되어 큰길을 가고 있었다.
구경꾼 가운데 그를 아는 어떤 사람이 놀라 물었다.
“아니, 자네 이게 웬일인가?
무슨 큰 죄를 짓기라도 했단 말인가?”

“정말 재수가 없었지 뭐가?”
범인은 우거지상을 하며 말했다.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기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주워 왔지.”

“아니 그럴수가!”
아는 사람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말했다.
“새끼줄을 주운 것도 죄란 말인가?”
범인이 대답했다.
“새끼줄 끝에 송아지가 달려 있을 줄 어찌 알았겠나?”

*어떤 상황에서도 심계를 범한 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옹호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발체 -

종회탐방 시리즈-(10)

11세조(諱 : 海源)
부사공종회(府使公宗會)

종회탐방기(10) - 부사공종회(府使公宗會)



심영섭
부사공종회 회장
대중회 이사

- ▲ 일 시 : 2013년 7월 19일(금)
- ▲ 장 소 : 의왕시 청계동 990-2 청송프라자 부사공종회 사무실
- ▲ 참 석 : 영섭 회장 외 9명
- ▲ 탐방자 : 상화상임부회장, 총무이사, 문화이사, 관리부장, 재욱 편집위원



▲ 부사공종회 탐방 시 영섭 회장님께서 종회현황 설명모습

1. 부사공종회 연혁

부사공종회는 1980년 이전에는 종중의 임원 및 집행부의 구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그때 일가들이 모여 위토에서 주어지는 곡물로 시향절사를 지내왔다. 그러던 중 80년 종회가 구성되어 초대 재구회장이 취임하여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위토를 부사공종중 명의로 등재하였고, 정관이 작성되고 임원이 구성되어 종중의 대소사 묘소관리 시향봉사 위토관리가 되어 왔다.

또한 위토를 팔아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5-1 삼정빌딩을 매입하여 종회사무실로 쓰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종회를 운영하며, 영통구 이의동 위토가 경기도시공사에 수용당하여 나온 보상금으로 안양에 상가를 매입하는 등 의왕시 청계동 상업지역에 청송프라자를 건축하여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

2. 종중 집행부 구성

부사공종회 구성은 회장, 고문, 부회장, 총무, 재무,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종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고문은 원로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종회인준을,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종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종회의 인준을, 재무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사는 3인 이상의 종인이 추천하여 회장이 승인하고, 감사는 종회에서 선출하며 다득표자에 한하여 2인을 둔다. 투표권은 만20세로 한다.

- ▷회장 : 영섭
- ▷고문 : 태섭, 려택
- ▷부회장 : 재문, 재륜
- ▷감사 : 정진, 재윤
- ▷총무이사 : 인보
- ▷재무이사 : 재근
- ▷이사 : 재국, 명섭, 재돈, 영보, 찬섭, 영근, 형진, 재홍, 도섭

3. 회의기구 및 운영

이사회는 종중의 대소사가 있을 시 회장이 이사회를 열고 이사의 2분의 1의 요구가 있을 시 이사회를 열 수 있다. 종중 일을 협의·결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등 3인의 서명을 받아 통보하고 보관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 실시하며 3월중 이사회를 열어 의제를 설정하고 토의하여 채택된 안건을 처리한다.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로 구성하며 월초, 중반, 월말 등 3차례 모임을 갖고 월별 수입·지출 등을 점검하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점검한다. 재무이사과 관리이사는 종회 건물에 상근하며 세원 및 건물관리 등을 한다.

4. 부사공 할아버님의 행적

府使公(휘:源海) 할아버지는 五世祖 安孝公의 셋째 아드님인 六世祖 정이공(靖夷公, 휘:決) 七世祖 水使公(휘:貞源) 八世祖 昌寧公(휘:光宗) 九世祖 啓功郎(휘:義恭) 十世祖 贈 禮曹參議(휘:崑)의 四兄弟 중 둘째 아드님으로 家系를 이어오셨다. 字는 비용(丕容)이시고 1530년에 태어나서 1589년 59세에 서거(逝去)하셨다.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시어 1556년 26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시고 1567년 군기정부사 大科에 급제하시고 서천군수, 철원도호부사(鐵原都護府使)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를 역임하신 통훈대부(通訓大夫)이시다. 할아버지께서는 임진왜란 때 세운 군공(軍功)으로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로 贈職되셨다.

공께서는 문장에도 능하시어 특히 서법(書法)이 매우 훌륭하여 국조방목(國朝榜目)에 정이선서명(正以善書名)과 오세창(吳世昌) 집근역서화징(輯楨域書畫徵)에 청송인원해관부사(靑松人源海官府使) 선서(善書)라 기록되어 있다. 도호부사공(都護府使公)께서 작고하시어 안효공 묘소 서북방향 지금의 동수원IC 영동고속도로 진입위치에 모시어져 있었으나 고속도로 개통으로 1988년 도로 위쪽으로 보은이씨 할머니와 합장하여 모시고 있다.

5. 송조돈족(崇祖敦族)사업

11세조 부사공 시향일은 음력 10월 4일(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세조 승훈랑공(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시향일은 10월 6일 이었으나 6세조 정이공(靖夷公) 시향일과 겹쳐 2012년부터 10월 2째주 토요일 부

사공(府使公) 시향절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요일 12세조 승훈랑공(承訓郎公) 절사(화성시 팔탄면 구장리)로 정하였다.

2012년부터 선조들의 묘역 탐방 계획의 일환으로 청송 시조묘 방문, 2013년 전북 익산 함열 2세조 묘역을 방문하여 시향 절사를 하고, 선조들의 얼을 되새기며 종원 간의 친목 도모를 기하고 있다.

6. 부사공종회의 자랑

- 1) 임원회는 월초, 중반, 월말 월3회 모임으로 종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의견 조율하여 종사업무를 원만히 처리한다.
- 2) 2011년부터 경로우대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의 원로종인분께 명절(추석/설)에 년 50만 원을 지급한다.
- 3) 5처 묘소 등 선조님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선조님들의 얼을 되새기며 종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 4) 이사회 및 시향일에 참석 종인에게는 5만 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 5) 종보찬조, 장학기금을 각각 100만 원씩 매년 200만 원을 대중회에 찬조하고 있다.

7. 부사공 후손들에 바람

영섭회장 : 일가 간에 자주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종회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여 종회발전에 다함께 노력하자.

8. 대중회에 건의사항

년1회 정도(12월) 11세조 이상 종회장의 모임을 갖고 건설적인 의견교환 및 친목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 탐방후기

제10회 종회탐방은 물심양면으로 대중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고 종회운영에 가장 모범적인 부사공종회(11世 諱 : 源海)를 탐방하였다. 오전 11시에 시작하여 1시간 30분간 화가에애하게 진행되면서 모범종회 부사공종회 임원진의 종회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실감하였다.

우선 종회운영에 사심(私心)을 갖지 않고 계시다는 것과 일가사랑의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이었다. 물론 안정적인 재정도 있겠으나 종회운영면에서 임원진이 솔선수범 하고 모범을 보이며 종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종인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영섭 회장님, 재문 부회장님, 인보 총무이사님, 재근 재무이사님과 참석해 주신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중회 집행부도 부사공종회의 훌륭한 점을 본받아 더욱 노력을 해야겠다고 재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종회탐방 예정 일정

- ▷9월(종보103호)-신천공과 춘천종회(회장:상소) 9월초 탐방
- ▷11월(종보104호)-태안종회(회장:운택) 10월초 탐방
- ▷1월(종보105호)-풍덕공과종회(회장:재영) 1월초 탐방
- ▷3월(종보106호)-충주종회(회장:광택) 3월초 탐방



▲ 11세조 부사공(諱 : 海源) 묘소



▲ 부사공종회 건물 청송프라자 앞에서 부사공종회 임원진과 함께 ...



▲ 종회탐방을 마치고 의왕시 백운호수에서 부사공종회 임원진과 함께 화가에애한 포즈

大宗會 임시이사회 및總會 參席 小考



沈東燮
대중회 이사
중보편집위원
경남진주총회 운영위원장

필자는 대중회 정기총회를 20년이 넘게 천리 길 진주에서 참석해오고 있다. 총회에서 1년에 한 번 씩 만나는 일가도 있지만, 춘·추 향사 때 많이 만났던 일가들을 만난다는 기쁜 마음으로 새벽 첫 버스를 탄다.

작년 정기총회 때에는 참석한 종인들 간 화기에 애한 분위기를 보고 중보에 「총회 참석소고」로 기고한 적이 있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8일 다정한 분위기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바 있는데, 지난 6월 20일 또 임시총회가 있다는 중보의 보도를 보고, 무슨 중요한 사안이 있나보다 하고 새벽 5시발 버스를 타고 천리 길을 달려갔다.

성균관 유림회관 3층에서 이사회를 끝내고, 곧 이어 지하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상정된 의안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정관개정안과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총회로 위임 결정한 부회장 3명 선출 건이 중요 안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작년 정기총회와 금년 4월 정기총회와는 그 모습이 180도 다른, 회의 내내 우선 놀라운 것은 고함 소리와 그에 동조하는 큰 소리가 난무하는 등 제대로 의사진행이 어려운 분위기였다. 아니 우리 대중회가 발족한지 40년이 넘었는데 일가끼리 좀 조용히 의견을 발표할 수는 없을까? 정말 실망스러웠다.

의장께서 사전에 의사발언 시간은 3분으로 하

고,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전체의견에 따르도록 협조를 구했으나 몇몇 중회지도자라는 분들의 발언은 그도를 지나쳤다.

그 어떤 회의든 회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조용히 발언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른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찬반양론을 잘 설명하고 많은 찬성으로 가결되었을 때는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승복하는 것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방식이다. 내가 발언한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한다면 어찌 청송심씨대중회의 성숙한 회의분위기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총회에서는 할아버지의 재실이 있는데 보상금이 나왔으니 이 기회에 할머니 재실을 짓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상을 섬기고자 하는 정성이야 가늠하지만, 이 또한 정관대로 회장단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현재 아쉬운 것은 우리 심문을 명문가로서의 반석위에 올려놓으신 사세조 정안공 청성백 德자 符자 할아버님의 재실도 아직 마련하지 못해 비가 오면 옆 마을회관을 빌어 제향을 올리는 형편인데, 한번 짚 완급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느껴졌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청송 심씨는 청화부원군의 후손일진대, 모든 종사는 규정대로 웃으면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일가끼리 모여 종사를 논의하는 자리는 조용히, 웃으면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지, 큰 목소리로, 무슨 노사분규장의 결전장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협박한 분위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질 땐 아쉬운, 얼른 총회 날이 왔으면 하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일가 간의 모임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2013년 7월 1일

任 員 會 費

50,000	화선(경북)	무식(강원)	상한(서울)
	상영(경기)	우경(광주)	원식(서울)
	백섭(서울)	인보(충북)	동섭(경남)
	상철(경북)	상학(충북)	성보(서울)
	규증(충남)		

獎 學 金 贊 助

10,000,000	함흥공종회 (회장 장식 외 영구, 병구, 정구)
400,000	현령공경남총회(회장:재화)
100,000	청송청년회(회장:정보)
60,000	강채(전남)

宗 報 贊 助

500,000	재서(경기)
150,000	동섭(경남)
100,000	현령공경남총회(회장:재화) 청송청년회(회장:정보) 언춘(경기) 재경(경기)
50,000	화복(경남) 선보(경남) 상영(경기) 우경(광주) 승태(경남) 재호(경북)
30,000	재현(전남) 경구(인천)

2013년 예산 對 실적

(2013. 7. 20)

구 분	예 산	실 적	달성률
중보찬조	32,000,000원	12,740,000원	40%
임원회비	18,200,000원	13,000,000원	71.4%
장학기금	2,000,000,000원	162,520,000원	8%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심장식
(주)선광 회장
함흥공파총회 회장

2013년 7월 작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주셨습니다.

정성어린 장학기금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대중회 장학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대중회 집행부는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회 회장 -

그동안 始祖·四世祖 묘소와 위토를 지켜주신 두 분 중유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심능광(청송유사)
2013.6.30 만료



심양섭(연천유사)
2013.5.30 만료

신임 청송(靑松) 중유사 시조묘소와 위토를 잘 지켜 심문의 위상을 높여 주십시오.



심상철(청송유사)
2013.7.1 임명

50만원 이상 중보·장학금 찬조 종인(2회) 사진게재

심재서 대중회 문화이사	심장식 함흥공종회장	심상군 부산총회장	심재화 현령공경남총회장	심재열 대중회 감사	심응무 인천총회장	심상하 봉익공철원총회장	심상욱 캐나다총회장	심순보 마산수운공파소중회 회장	심석용 정리공파어비리총회장	심광섭 서울/대중회이사
중보찬조 50만원 2013. 7	장학금찬조 1천만원 2013. 7	장학금찬조 3천만원 2013. 4	중보/장학찬조 50만원 2013. 4/6	장학금찬조 5백만원 2013. 4	중보/장학찬조 80만원 2013. 1/4	중보/장학찬조 50만원 2013. 4	중보찬조 50만원 2013. 3	장학금찬조 50만원 2013. 4	중보찬조 50만원 2013. 3	장학금찬조 50만원 2013. 2

관향(貫鄉) 소식

공 지 사 앙

안동종회 심재덕 회장 지난 6월 22일 『제30회 영가시회 한시백일장 및 제1회 전국 청소년 경전 암송대회』 개최

▼자료제공



沈 南 圭
종보편집위원
대종회 이사

대덕육영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덕(載德) 안동 종회장이 지난 6. 22일 오전 11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안동시 녹전면 갈현리 소재 대덕연수원에서 전국 각지의 청소년과 유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영가시회 한시 백일장 및 제1회 전국 청소년 경전암송대회』를 열었다.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경전암송대회는 사자소학, 추구, 계몽편, 동몽선습, 격몽요결, 명신보감, 소학 가운데 하나를 참가자가 지정하여 약 3분 가량 암송하

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한시백일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유생들이 한시(漢詩) 짓기에 열을 올렸는데 장원 등 입상자들에게는 상금과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재덕(載德)회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선조들의 선비정신을 이어받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심재덕 회장 주최 한시백일장에 참가한 여성 유림들의 내방가사 경창 모습



▲ 심재덕 회장이 한시백일장에 참가한 입상자와 기념촬영 모습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춘향봉행 현관내역

조현 : 재룡 / 아현 : 현근 / 중현 : 무섭
대축 : 용규 / 집례 : 상호

현령공 경남종회 임원개선

- 상임고문 : 의조
- 운영위원장 : 동섭
- 회 장 : 재화
- 부 회 장 : 정섭
- 총 무 : 재환
- 감 사 : 용진

일가들의 단합모임

법곶종중과 정랑공종회 모임

2013년 7월 7일(일) 섭씨36도 불볕더위에 연천 4세조 청성백(휘:덕부)할아버님 묘역 잡풀 제거 차 정랑공종회 재수총무 내외, 재법일가, 법곶종중회장 완보일가, 대종회 집행부가 자리를 함께했다.

잡풀을 뽑고 별초를 한지 한 달이 채 안되었는데 여가져기 때 풀이 돌아났다. 호미로 하나하나 뿌리까지 캐내는 작업을 하고나니 모두가 땀범벅이 되었다.

그러나 청성백 묘소를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더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껏 때 풀을 뽑고 나니 산뜻한 묘역이 참 보기 좋았으며, 작업 후엔 임진강 매운탕 집에서 조촐한 점심을 함께 나누며 친목을 나누었다.



▲ 7월 7일 연천 청성백 묘소 잡풀 제거 후 땀을 식히며 (촬영:재서 문화이사)

청송군 서울센터 개소식 장면

청송군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난 18일 동대문구 용두동에 수도권 군정 홍보와 대외 협력 강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서울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서울센터는 건물주인 심상조 청송군향우회연합회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45평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승낙받아 사용하게 됐다.



대구종회 강릉참배

대구종회 회장 홍섭 외 종원 40여명은 2013년 6월 20일 성군관 유림회관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 참석한 후 明宗大王과 仁順王后가 잠드신 康陵을 참배하였다.



▲ 강릉(康陵) 참배 후 종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 현재 임원(이사)은 적정수이므로 별도 공지하기 전까지는 추천을 받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지급은 장학찬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흑자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 등) 뿌리교육이 8월 10일(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구청(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오니 가족과 함께 특히 중·고·대학생 등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2월 수여 장학금 신청 내용과 양식은 9월호 종보에 공지합니다.
- 회장단회의는 8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 대종회에서는 종인들께 책자를 무차별 발송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강매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일명<대동보감>이라는 책을 배송 받았고, 금액은 20만 원으로 우체국 계좌로 입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종회에서 발간한 것이 아니며, 대종회를 사칭한 자들이니 절대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받은 책자는 착불로해서 반송시켜야 합니다. 모쪼록 종인들께서는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사·사망 등으로 종보수령 주소지 변경 시 대종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청송심씨종보는 격월 발행지로 흡수월 30일 발행됩니다.
- 인터넷족보 신청접수는 등재비용 과다로 2015년 등재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보 구독은 대종회로 팩스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종회 배지 구입은 20개 단위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 경진보 족보는 대폭 할인하여 10만 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임원회비(명예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미납입 임원께서는 입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각종 찬조금 종보 공지에 착오가 있을시 필히 대종회 재무담당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화 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 상 욱(배우자)

상욱 대종회부회장의 배우자께서 6월 11일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심 달 섭

대종회 지도위원회께서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 송 | 금 | 안 | 내 |

任員會費·宗報贊助·獎學贊助·族譜代金 등 입금구좌
· 청송심씨대종회
농협: 301-0107-5873-71